

# 청 원 서

- 청 원 명 :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
- 소개의원 : 오영세, 김남욱 의원
- 청원내용

저희들은 판암동에서 동구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판암동에는 1·2동을 합쳐서 1만여 세대에 2만 6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판암동은 대전의 관문이자 지하철의 출발역으로 1일 6천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판암동의 유동인구는 증가하여 활력이 있어 보이나 지역경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암동에는 미개발 지역이 많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슬럼화가 우려 됩니다. 각종 사회활동과 주거활동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판암동은 대전의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어 지하철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판암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개발이고, 두 번째는 상권이 형성되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젠만이 대전발전에 있어 동서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외받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암동에 대하여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화로운 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조성되면 옥천, 영동에 거주하는 분들과 타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접수 의사담당관실-제5대-3호  
( 2007. 5. 15. 11:31 )

판암역을 중심으로 한 판암동 인근지역에 상업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2003년에 작성된 대전시 동남부권 개발계획이나(지금도 동구청 홈페이지 동남부권 개발계획도의 판암사업지구에는 상업지역 표기)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안에는 상업지역을 <sup>에서 제외된</sup>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판암동 지역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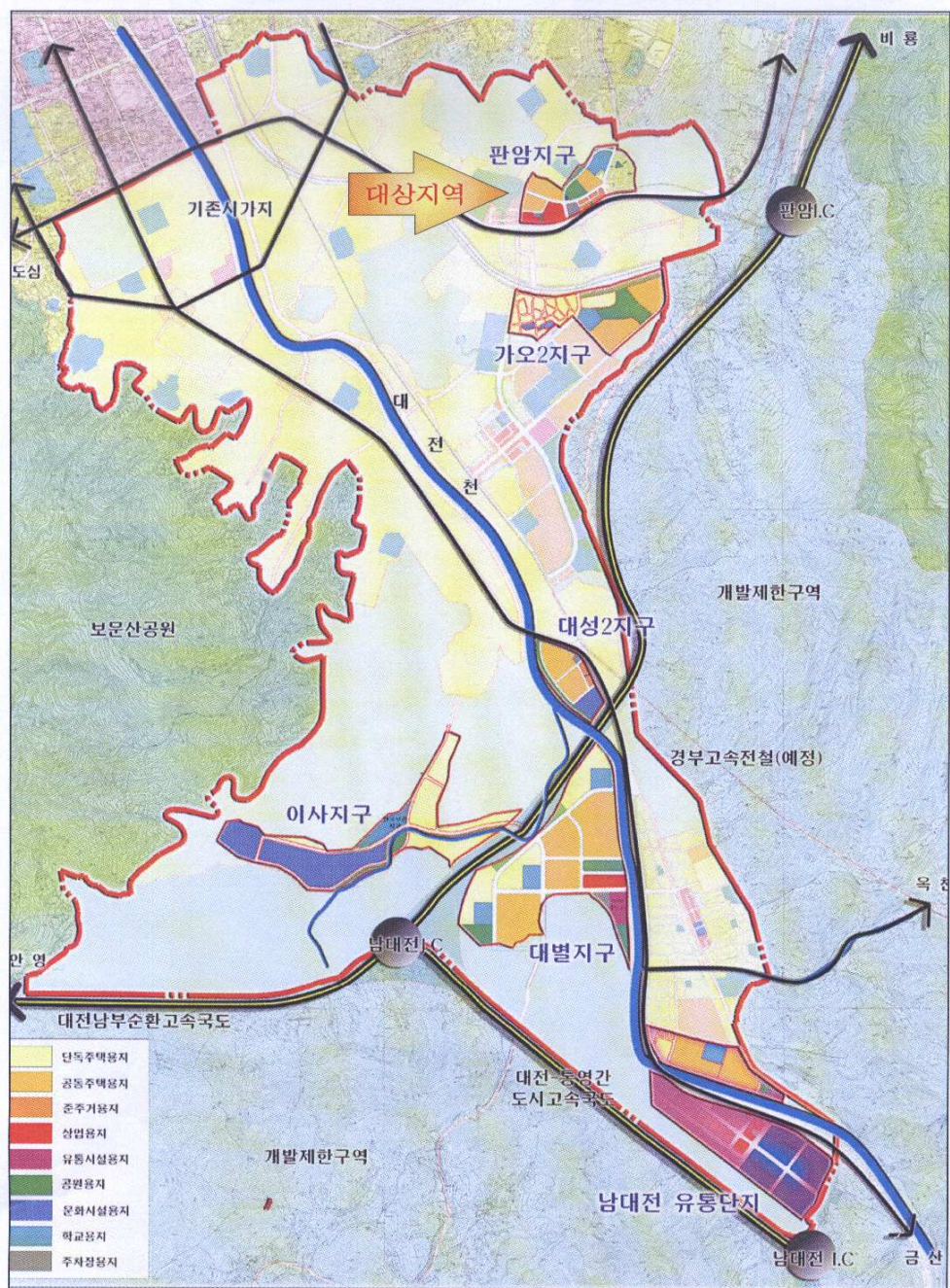
따라서 대전시는 판암동의 조속한 개발과 아울러 상업지역 지정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기왕에 추진한 계획대로 판암동 지역에 상업지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적극적인 조치 바랍니다.

2007. 5. .

청원인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640-7번지 판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성근 (인) 외 2,44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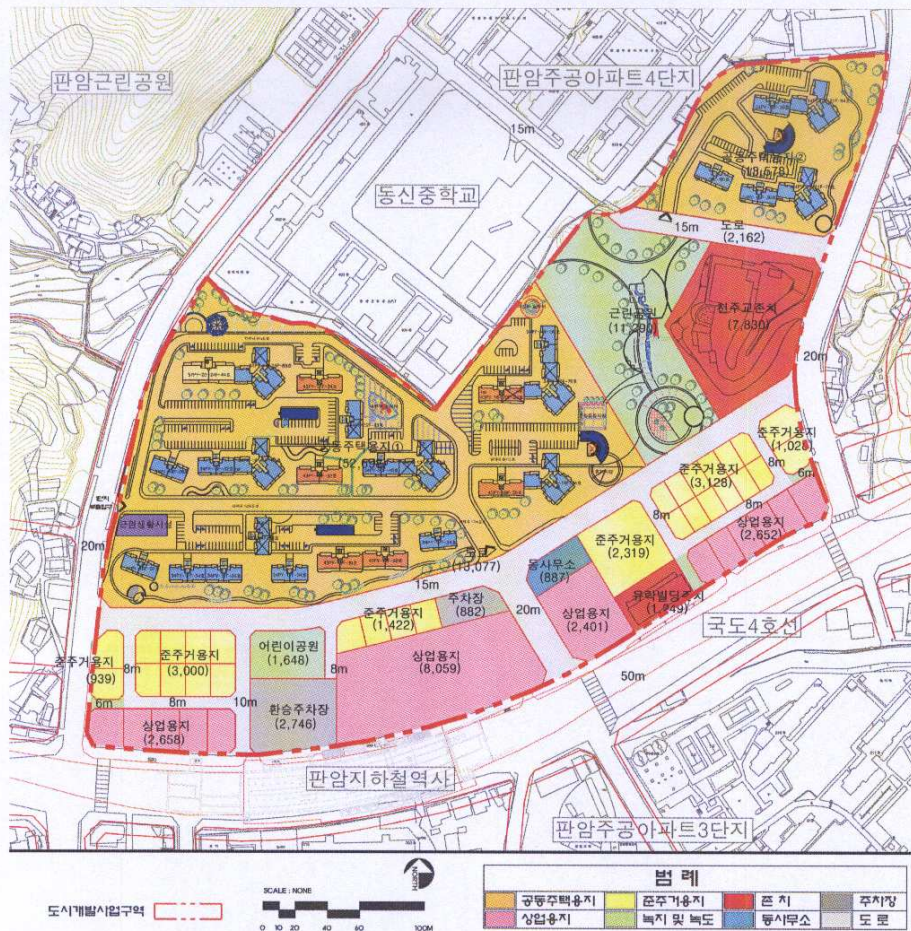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 계획평면도



## □ 판암지구 상업지역 조성 건의 대상

- 위 치 : 판암동 308번지 일원
- 계획현황 : 1,409세대 3,945명
  - 상업용지 15,770㎡, 공동주택 1,313세대, 준주거 96세대
  - 면적 : 135,653㎡(41,035평)
- ⇒ **상업지역 지정 건의 대상 : 15,770㎡**